

## 다이쇼인 절: 다이시도

다이쇼인 절 경내의 가장 안쪽에 위치한 사당에서는 구카이(774~835)를 모시고 있습니다. 구카이는 진언종의 창시자이자 다이쇼인 절을 창건한 승려로 유명합니다. 전승에 따르면, 806 년에 미센 산을 찾은 구카이는 오늘날에도 진언종의 수행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호마법’(불을 피우며 기도를 올리는 의식) 등의 수행을 했습니다. 이러한 수행에서 다이쇼인 절이 기원했다고 알려져 있으며, 구카이가 1,200 여년 전에 피웠던 당시의 신성한 불씨는 지금도 미센 산에서 타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고야산에서 절을 창건하는 등, 구카이는 일생에 걸쳐 수많은 위업을 이루어냈습니다. 지금의 와카야마 현에 있는 고야산은 수많은 사원이 곳곳에 자리한 지역으로, 진언종에 있어서는 특히나 중요한 성지 중 하나입니다. 구카이는 이 같은 공로를 치하하여 사후에 ‘위대한 불교 지도자’라는 의미의 ‘고보다이시(弘法大師: 홍법대사)’라는 칭호를 받았습니다. 다이시도(大師堂)의 ‘다이시(大師)’는 고보다이시(홍법대사)를 줄여 붙인 이름으로, ‘고보다이시의 사당’이라는 뜻입니다. 다이시도의 기원은 에도 시대(1603~1868)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1887 년에 발생한 화재로 부지에 있는 대부분의 사당이 소실된 상황에서도 화를 면할 수 있었던 몇 안 되는 건물 중 하나입니다. 사당에서는 소박한 모습의 구카이 동상을 모시고 있습니다.